

'우리가 기록하는 당산제' 기획전시

부안군문화재단, 부안역사문화관서 내년 2월 28일까지 부안작은미술관 마지막 테마전 개최

(재)부안군문화재단(이하 재단)은 28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부안역사문화관에서 〈2024 부안작은미술관, 부안을 아카이브 하라〉 '우리가 기록하는 당산제' 기획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재단은 올해 부안의 지역성과 장소성에 초점을 두고 변산 해변길을 걸으며 주운 해양 쓰레기를 설치미술로 표현한 '변산, 풍경이 된 플라스틱', 지역 장애인 작가의 변산 풍경화 전시 '모두의 여행, 부안'을 운영해 왔다.

'우리가 기록하는 당산제'는 '2024 부안작은미술관' 기획전의 마지막 테마로 연초 마을의 안녕과 풍작을 기원하는 제례이자 놀이였던 우리 전통문화 당산제를 다룬다. 점점 축소되고 사라져가는 당산제를 마을 주민의 구술 중심으로 풀어내어 잊혀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기록하고자 했다.

전시에서는 내요리 돌모산 당산, 우동리 당산, 대벌마을 쌍조석간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만드는 용쥬, 줄다리기, 풍물패의 흥겨움 등을 담은 인터뷰 영상과 유종희



'우리가 기록하는 당산제' 기획전시 포스터

작가가 지역민 구술을 기반으로 당산 원형을 재현한 작품, 이병노 사진 작가가 당산을 배경

으로 지역민의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집단 기억을 모아낸 조형물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당산 보존회장 이영식님이 기록한 "돌모산 당산제 물목기(物目記: 제수, 그릇, 물품 등 세부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결산 장부)"가 최초로 전시될 예정이다. 물목기에는 오징어 한 축, 벼단, 쌀 한가마, 돼지 한마리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희사품이 빼곡히 적혀있다. 이는 당산제가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적 역할을 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부안이야기 하절희 이사와 김성식 전주대 고전학연구소 연구교수로부터 자문 및 사진을 제공받아 현재까지 형상이 남아있는 당산을 소개한다.

부안군문화재단 관계자는 "당산제는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며 주민의 화합을 끌어내어 마을공동체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급속도로 현대화되는 사회에서 마을공동체의 미래상을 그려보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게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하였다.

전시 관람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예약 없이 전시 기간 내에 부안역사문화관을 방문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인생의 한 시점에서 자화상을 그리다'

우석대 이영철 명예교수, 열 번째 시집 '자화상 49' 출간

우석대학교 이영철(특수교육과) 명예교수가 열 번째 시집 '자화상 49(중문출판사)'를 출간했다.

이 시집은 '화양연화', '오리무중', '좌충우돌', '소풍여행'과 같이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0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영철 교수는 서문을 통해 "내 인생길은 가능할 수 없는 오리무중이었고 좌충우돌이었다"라며 "매일매일 그려내는 순간의 자화상이 모여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화양연화, 소풍여행을 수놓는 나의 자화상을 그려내고 싶다"라고 말했다.

1994년부터 2021년까지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던 후 명예교수로 추대된 이영철 교수는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위원과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장, 우석대학교 사범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영철 교수는 시집 'COVID-19, 세상을 해체하다', '작은 사람의 생각을 담기만 한다면', '낯선 세상에 홀로 서 보면' 등과 수필집 '행복비빔밥'을 출간했으며,



이영철 교수



이영철 제10집 자화상 표지

사진전과 서양화 전시회 등 활발한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원주=염재복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제5기 대학생 SNS 기자단 12월 2~27일 모집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이 박물관 홍보를 함께 할 제5기 대학생 SNS 기자단을 12월 2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박물관과 홍보에 관심 있는 전북 지역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국립전주박물관 제5기 대학생 SNS 기자단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다.

기자단은 취재 분야와 영상 제작 분야 각 4명씩 총 8명이 선발될 예정이며, 박물관 특별전과 문화행사, 교육프로그램 등을 취재하는 한편 영상과 글을 SNS에 게재하며 국립전주박물관을 홍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

대학생 기자단은 취재활동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으며, 국립전주박물관 행사에 우선 참여해 취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우수기자는 국립전주박물관장상을 수여하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지원 희망자는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국립전주박물관 홍보 담당자는 "국립전주박물관 대학생 SNS 기자단은 활발한 활동을 통해 박물관 홍보에 계속 앞장서고 있다"라며 "박물관을 사랑하는 전북 지역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관서당서 겨울밤 특별한 추억 선사

남원시, 12월 15일까지 '수궁야광놀이터 in 관서당' 운영

남원시는 겨울을 맞아 11월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수궁야광놀이터 in 관서당(이하 관서당)을 운영한다.

이 행사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시 운영되며, 특히 야간 프로그램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진행해 관람객들에게 환상적인 겨울밤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관서당은 관서당 남성재와 꽃 담장 길을 중심으로 전시, 체험, 교육, 놀이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남원 청년 예술작가들이 제작한 블랙라이트 기반 UV 작품 전시는 형광물질과 UV 조명을 결합해 빛과 색의 독창적인 조화를 이룬다. 이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꽃 담장 길에는 야광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관서당 마당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하고, 관서당 마당에서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관람객들이 직접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하며 축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형광·야광 그림 도구를 활용해 자신만의 작품을 제작하는 '나도 예술가!'와



관서당 곳곳에 숨겨진 한자를 찾아보는 놀이형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남원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박준기 관광시설사업소장은 "관서당을 통해 관람객들이 겨울밤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남원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손이천 K옥션 수석경매사 초청 미술시장 특강

전주 JB문화공간서 미술 작품 가치·아트 컬렉팅 매력 알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후원하는 전주 JB문화공간에서 지난 26일 손이천 K옥션 수석경매사를 초청해 '아는 만큼 보이는 미술 작품의 가치와 아트 컬렉팅의 매력'이라는 주제로 명사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에 초청된 손이천 수석경매사는 국내에 단 몇 명 뿐인 미술품 경매사 중 '0.1초의 승부사'로 통하며 총 100여 회가 넘는 경매 참여라는 놀라운 이력의 소유자로서 MBC '무한도전', JTBC '유크즈' 등의 인기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얼굴이다.

이 날 강의에서는 미술시장의 구조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MZ컬렉터들의 등장으로 한층 젊어진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트렌드 분석, 미술품 컬렉팅의 매력, 미술품 경매 최고가를 기록한 작품들과 자산으로서의 미술품에 대한 이해까지 다양한 아트 컬렉팅의 세계에 대해 흥미롭고 심도 깊은 강연을 들려줬다.

청중들은 "지금까지 그림을 그저 보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강연을 듣고 나니 언젠가는 나도 나만의 컬렉션을 가지고 싶어졌다", "우리 지역에도 미술관과 갤러리가 많은데 주말엔



그림 감상하러 근처 전시 공간에 방문해 봐야겠다", "이런 프로그램은 JB문화공간에서만 접할 수 있는 특별한 강연인 것 같다" 등 큰 만족감을 전했다.

한편, 오는 12월부터 전주 JB문화공간에서는 성기선 전주시향 상임지휘자와 함께 하는 '클래식 락서 콘서트'와 '코르넬 코아모러스 콘서트',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미술쇼'가 진행된다. JB문화공간의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JB문화공간 통합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